

보도자료

발표 시점 : 2010년 07월 27일 (수)

보도 시점 : 발표즉시

제목 : HRI 한반도 평화지수

-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지수”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 전문가들 출구전략 모색을 제언

< 연락처 >

통일경제센터

최성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HRI 한반도 평화지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 전문가들, 출구전략 모색을 제언 -

2010. 7

목 차

■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 전문가들, 출구전략 모색을 제언	
I. 2010-2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1
II. 남북 관계 현안 설문 조사 결과	7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 개요	10
< 부록 2 > 동향데이터 핵심 변수	11
< 부록 3 >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2

Executive Summary

□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 전문가들, 출구전략 모색을 제언

(종합 평가) 2010년 2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산정한 결과,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2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대비 7.3p 하락한 22.6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1분기에 비해 더욱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평화지수가 22.6이라는 것은 평가기준에 따르면 '긴장 고조 상태'에 해당한다.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공격으로 판명한 후, 북한이 전쟁불사론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3분기의 기대지수에서는 남북간의 긴장 고조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지수는 비록 2분기 평화지수보다 4.0p 높은 26.6을 기록했으나, 현재의 악화된 남북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안보리 의장 성명 이후에도, 북핵 문제 등 현안들로 인해 남북 관계가 단기간에 쉽게 개선되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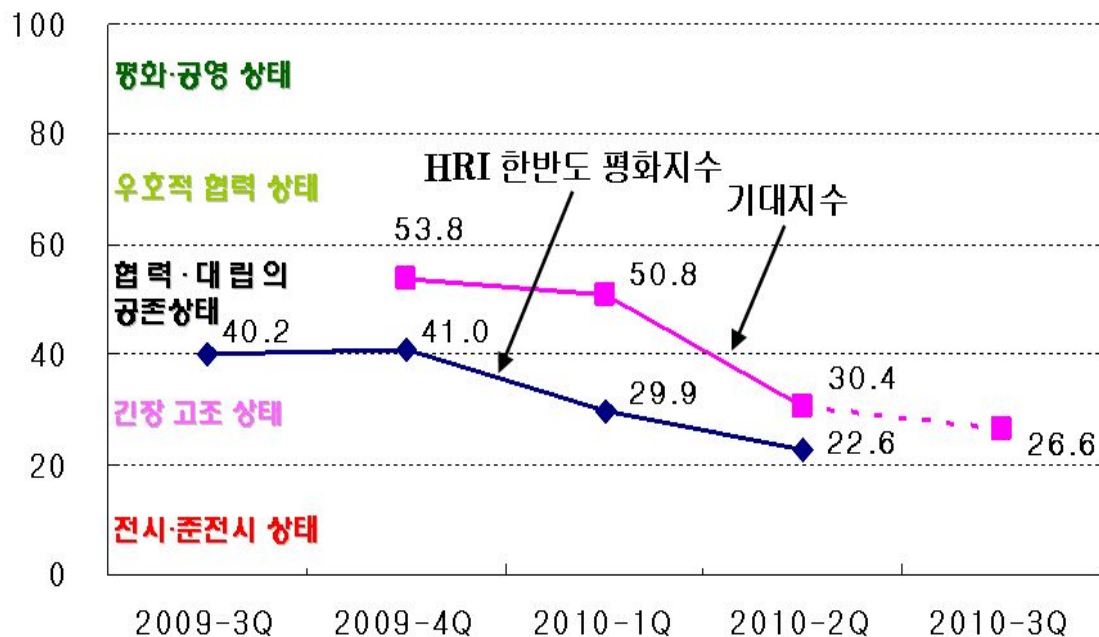
(주요 특징) 2분기 평화지수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특징은 첫째, 남북 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설문조사에 기초한 전문가평가지수는 2009년 1분기 40.5를 기록한 후 33.5→16.5→10.9로 연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남북 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평가를 보여준다. 둘째,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보다 악화되었다. 남북 관계에서의 정치·군사적인 주요 사건들을 평가하는 이벤트지수가 33.3으로 경제와 사회·문화·인도적인 면에서의 교류실적을 측정한 교류지수보다 더 낮아졌다. 셋째, 남북 관계의 악화가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 등의 객관적 지표와 전문가평가지수의 주관적 지표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넷째, 이념적 성향에 따른 전문가 평가에 있어서는 보수적 성향 전문가들의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 전문가평가지수의 추이에 따르면,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들의 경우, 지난 2009년 3분기 이후 평균 12.4p의 하락세를 보임으로써 각각 9.2p와 9.0p의 하락세를 기록한 중도와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들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보수적인 성향의 전문가들이 남북 관계의 악화에 대해서 이전보다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대책)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다. 대북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전문가(46.7%)들은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마무리하고 남북 관계의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이 선택한 바람직한 출구전략으로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물밑접촉(28.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6자회담 재개로의 정책 선회(22.5%), 인도적 지원의 확대(18.3%), 남북 경협 확대(14.1%), 금강산 관광 재개(11.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와 같이 총체적으로 악화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 등 정치적 측면에서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과 개성·금강산 사업 등의 남북 경협의 확대가 이러한 출구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 2010-2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종합 평가)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남북 관계는 지난 분기보다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22.6을 기록하여 지난 분기에 이어 연속 하락세를 나타냄
 - 지난 분기 29.9를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대비 7.3p 하락한 22.6을 나타냄으로써 남북 간 긴장이 보다 고조되었음을 보여줌
- 기대지수도 20선에 머물러 전문가들의 다음 분기의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이 밝지는 않음
 - 3분기 기대지수가 26.6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남북 간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2009~2010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추이 >



○ (특징 분석) 전문가평가지수가 전체적인 하락세를 주도하였으며,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음

- 2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10.9, 정량분석지수는 34.4를 각각 기록하였으며, 전문가평가지수가 정량분석지수보다 23.5p정도 낮은 수치를 나타냄
 - 이는 남북 관계의 객관적인 평가보다 전문가들의 남북 관계 인식이 훨씬 더 부정적임을 의미함
 - 북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 거부, 6자회담의 재개 지연, 남북 교역 전면 중단 조치 등 남북 관계 전반의 위기감이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3분기 이후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는 연속 4분기 하락세를 나타냄으로써, 전문가들의 남북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어 왔음을 보여줌

< 2009~2010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정량분석지수		전문가평가지수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3월말	4월말	3월말	4월말
'10-2분기	22.6 (▽7.3)	34.4 (▽8.9)	33.3 (▽9.5)	35.4 (▽8.4)	10.9 (▽5.6)		26.6 (▽3.8)	
'10-1분기	29.9 (▽11.1)	43.3 (▽5.2)	42.8 (▽6.5)	43.8 (▽3.9)	3월말	4월말	30.4 (▽20.4)	18.1 (▽12.3)
					16.5 (▽17.0)	7.2 (▽9.3)		
'09-4분기	41.0 (▲0.8)	48.5 (▲8.7)	49.3 (▲1.2)	47.7 (▲16.2)	33.5 (▽7.0)		50.8 (▽3.0)	
'09-3분기	40.2	39.8	48.1	31.5	40.5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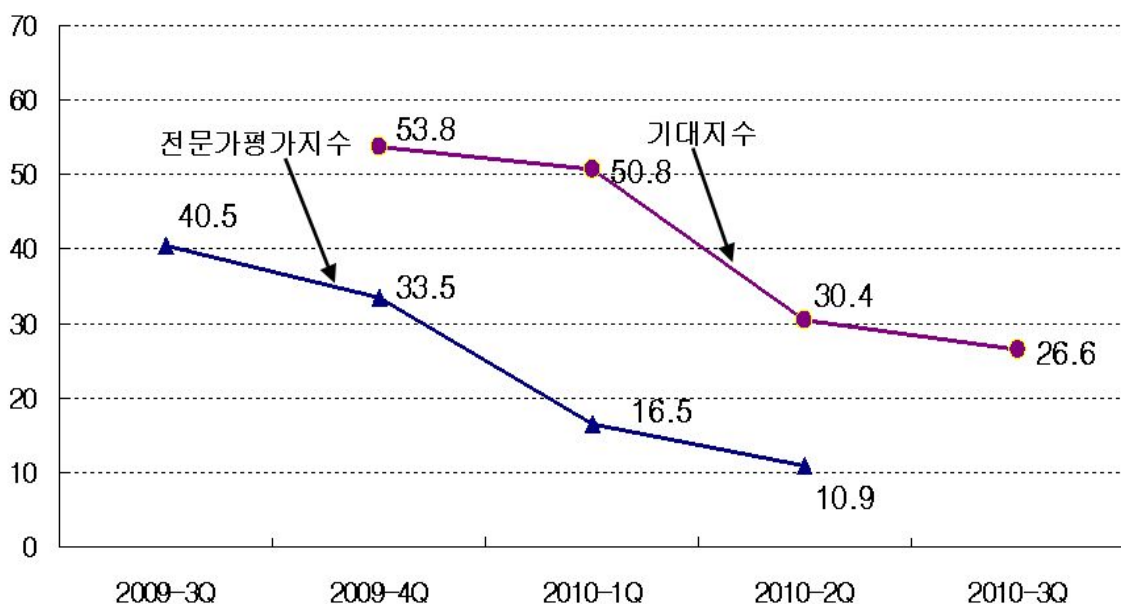
주 : 1) 2010년 1분기의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는 3월말(정기설문조사)과 4월말(추가설문조사)에 각각 시행한 결과를 기초로 하였음
 2) 2010년 2분기의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상승·하락폭은 1분기 지수를 기준으로 함

○ (항목별 평가) 2010년 2분기 남북 관계에 대한 전문가 평가지수와 실적을 기초로 한 정량분석지수 모두 하락세를 기록

(1) 전문가평가지수 (2010년 1분기 : 16.5 → 2010년 2분기 : 10.9)

- 총 75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에 비해 악화되었음
- 2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대비 5.6p 하락한 10.9를 기록하였음
- 특히, 전문가평가지수는 2009년 3분기부터 40.5 → 33.5 → 16.5→10.9로 4분기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으로서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각한 우려를 보여줌
- 3분기의 기대지수도 26.6을 기록하여 현재와 같은 남북 간의 긴장 고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기대지수의 추세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현재 분기에 대한 평가(전문가평가 지수)보다 평균 15.0p 상향된 기대치를 제시하면서도 기대지수는 53.8 → 50.8 → 30.4 → 26.6으로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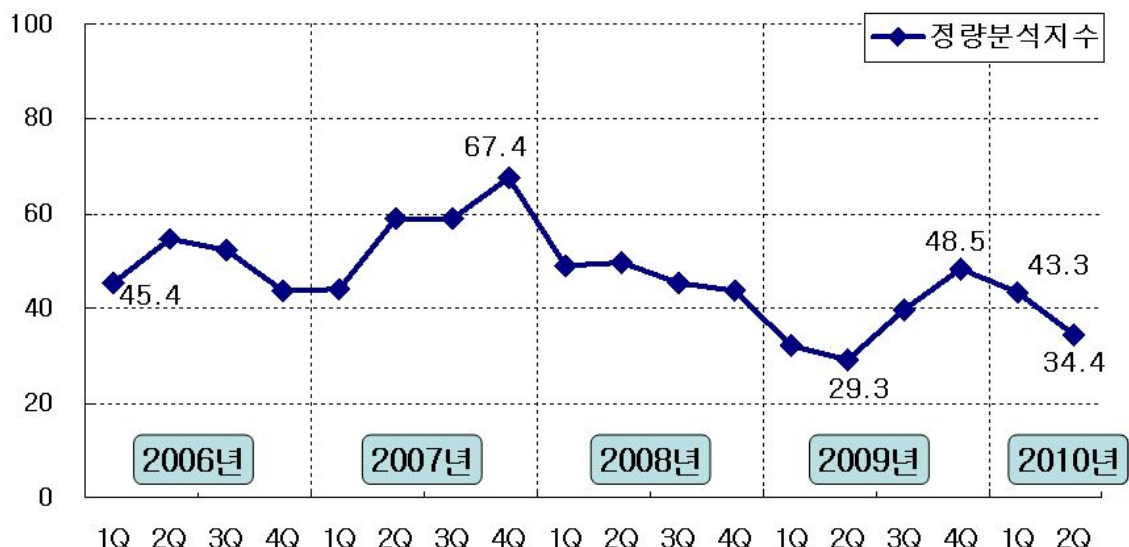
< 2009~2010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



(2) 정량분석지수 (2010년 1분기 : 43.3 → 2010년 2분기 : 34.4)

- 2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43.3보다 8.9p 하락한 34.4를 기록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객관적 실적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정량분석지수는 2009년 4분기에 40선을 상회하였으나, 지난 분기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다시 30선으로 급격히 하락
 -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간의 강대강의 대응이 이어지면서 정량분석지수는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정량분석지수의 추세를 보면 2008년에는 남북 교류 관계의 실적치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2009년 이후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큰 변화를 나타냄
-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인 주요 사건들을 평가하는 이벤트지수와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적 분야의 교류 실적을 나타내는 교류지수 모두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남북 관계가 총체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남북 관계가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문화·인도적 측면에서 모두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2006~2010 정량분석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이벤트지수'와 경제·사회·인도 분야의 '교류지수'의 평균값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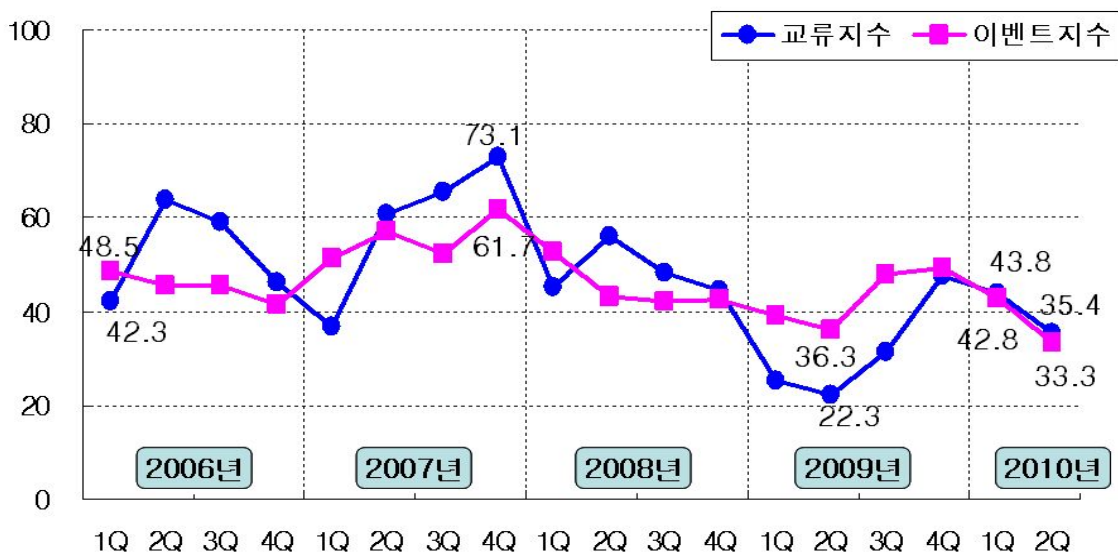
① 이벤트지수 (2010년 1분기 : 42.8 → 2010년 2분기 : 33.3)

- 이벤트지수는 전기대비 9.5p 하락한 33.3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줌
- 특히, 2분기 이벤트지수는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 2분기 때의 36.3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이는 천안함의 여파가 핵실험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② 교류지수 (2010년 1분기 : 43.8 → 2010년 2분기 : 35.4)

- 교류지수가 전기대비 8.4p 하락한 35.4를 기록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 관계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남북 교역은 지난 분기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나, 금강산 관광이 2년째 재개되지 못하고 신규 협력사업 승인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산가족 상봉 실적 및 이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사회·문화적 분야의 협력사업 승인은 1건에 불과
- 한편, 천안함 침몰이 상반기 전체의 이슈가 되면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영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벤트지수가 경제·사회·인도적 부문의 교류를 나타낸 교류지수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2분기 이벤트지수는 33.3을 나타내어 35.4를 기록한 교류지수보다 낮게 나타남

< 2006~2010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 (성향별 분석) 보수적 성향의 전문가들의 남북 관계의 악화에 대한 우려가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남

- 한반도 및 남북 관계 전문가 75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 분석 결과, 현재 전문가평가지수는 10.9, 기대지수는 26.6을 각각 기록함
 -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13.0, 9.5, 10.8로 나타나 서로 4.0p내의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음
 -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보수적 성향이 31.0으로 중도 및 진보적 시각의 22.4, 29.4보다는 높게 나타남
 - 한편, 진보적 성향의 전문가들은 안보리 의장 성명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과 남북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어 중도보다는 높게 나타났음
-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의 하락세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진보 성향이 가장 작게 나타남
 - 보수적 성향의 경우, 전기대비 6.0p의 하락세를 나타내어 중도와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에 비해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냄
 - 보수적 성향의 경우 2009년 3분기 이후, 평균 12.4p의 하락폭을 나타낸 반면, 중도와 진보 성향은 각각 9.2와 9.0을 기록함
 - 이는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이 지난 3분기 이후 남북 관계의 악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다른 성향에 비해 보다 커졌다는 것을 의미

<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기대지수	HRI 평화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0 2분기	13.0 (▽6.0)	31.0 (▽0.3)	9.5 (▽4.5)	22.4 (▽8.2)	10.8 (▽5.0)	29.4 (▲0.6)	10.9 (▽5.6)	26.6 (▽3.8)	22.6 (▽7.3)
'10. 1분기	19.0 (▽20.7)	31.3 (▽20.1)	15.0 (▽15.5)	30.6 (▽24.0)	15.8 (▽13.9)	28.8 (▽20.0)	16.5 (▽17.0)	30.4 (▽20.4)	29.9 (▽11.1)
'09. 4분기	39.7 (▽10.5)	51.4 (▽6.2)	30.5 (▽7.6)	54.6 (▲0.2)	29.7 (▽8.1)	46.8 (▽4.9)	33.5 (▽7.0)	50.8 (▽3.0)	41.0 (▲0.8)
'09. 3분기	50.2	57.6	38.1	54.4	37.8	51.7	40.5	53.8	40.2

주 : 1) 2010년 2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010년 7월 1일~7월8일까지 설문조사 결과임
 2) 2010년 1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010년 3월 29일~ 4월 2일까지, 2009년 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009년 12월 14일~18일까지, 2009년 3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2009년 9월 22일~ 28일까지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함

2.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 (저작권 환수 연기) 저작권 환수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응답

- 전체 75명의 전문가 중 57.3%는 저작권 환수 연기 조치가 남북 관계와 안보 상황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
- 21.3%는 ‘한미 동맹과 대북억지력 강화로 남북 관계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17.3%는 ‘남북 간의 긴장이 보다 고조될 것이다’라고 응답

○ (천안함 대응)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할 경우 다수의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을 주문

- 전체 46.7%의 전문가들이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관계없이 천안함 사건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평가함
-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유엔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33.3%의 응답자까지 포함할 경우 80%의 전문가들이 천안함 사건을 유엔 성명으로 마무리하거나 또는 남북 관계의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평가
- 반면, 우방국을 통한 독자적 대북 성명 발표나 독자적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3.3%와 1.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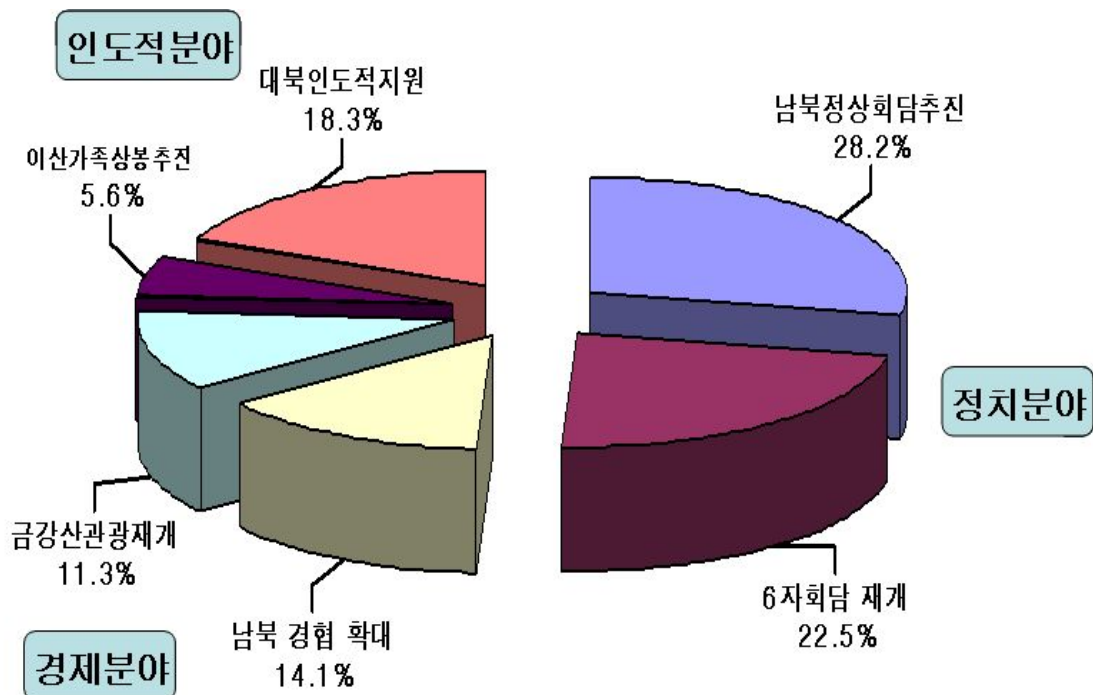
<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시 정부 대응 방향 >

정부 대응 방향	비중
천안함 사건 마무리, 새로운 출구전략 모색	46.7%
시간 지연돼도 유엔 결정을 기다리며 수용	33.3%
유엔 결정 늦어지면 우방국과 협의 하에 대북 성명 발표	13.3%
안보리 결정과 관계없이 독자적 제재안 강구	1.3%
잘 모르겠다	5.3%

○ (바람직한 출구전략) 다수의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의 출구전략으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선택함

- 전체 28.2%의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대북 정책의 출구전략으로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을 주문
 - 6자회담 재개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응답이 두 번째(22.5%)를 차지하였으며, 식량과 비료, 의약품등 인도적 지원의 확대가 세 번째(18.3%)를 차지
 - 이외에 남북 경협 지원 및 확대가 14.1%,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자 회담 제의가 11.3%, 이산가족 상봉은 5.6%로 각각 나타남
- 전문가들이 응답한 출구전략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치분야가 50.7%, 경제분야가 25.4%, 인도적분야가 23.9%의 순으로 각각 나타남
- 이는 현재 극도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필요함을 시사

< 바람직한 대북 정책 출구 전략 >



○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 다수의 전문가들은 천안함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병행해야 한다고 응답

- 전체 70.7%의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 해결과 6자회담 재개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
- 반면, 먼저 천안함 문제를 해결하고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를 차지함

○ (남북 관계 전망)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당분간 현재와 같은 긴장 고조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평가

- 전체 82.7%의 전문가들은 천안함을 둘러싼 외교전이 장기화되면서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았음
- ‘정부의 출구전략추진으로 남북 관계가 조만간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6.7%를 차지함
- 반면, ‘대북심리전 재개 등의 조치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5.3%로 나타남

< 향후 남북 관계 전망 >

정부 대응 방향	비중
외교전 장기화 되면서 현재 상태 유지	82.7%
대북정책 출구전략으로 조만간 전환점을 맞이할 것	6.7%
심리전 재개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것	5.3%
잘 모르겠다	5.3%

최성근 선임연구원(2072-6223, csk01@hri.co.kr)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¹⁾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달는 상태	20이하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 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 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부록 2 > 동향데이터 핵심 변수

< 동향데이터 핵심 변수 구성 >

구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주: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기금은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으로 구성

< 부록 3 > 남북 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 (목적)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전문가 평가지수 산출을 위하여 지난 3개월 및 향후 3개월의 남북관계 진단 및 전망

- (조사 시기) 2010년 7월 1일 ~ 7월 8일 (7日), 총 응답자 75명

2. 조사 내용

□ 남북 관계 분석 및 전망

○ 정치·군사 관계

(문)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69.3
2. 그렇지 않다	30.7
3. 보통이다	0
4. 그렇다	0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문)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62.7
2. 그렇지 않다	37.3
3. 보통이다	0
4. 그렇다	0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문) 북한과 주변국가와의 관계가 호전되었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25.3
2. 그렇지 않다	68.0
3. 보통이다	6.7
4. 그렇다	0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문) 북한 내부 체제가 안정되고 있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8.0
2. 그렇지 않다	49.3
3. 보통이다	34.7
4. 그렇다	8.0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문)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60.0
2. 그렇지 않다	38.7
3. 보통이다	1.3
4. 그렇다	0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문)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17.3
2. 그렇지 않다	57.3
3. 보통이다	22.7
4. 그렇다	2.7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 경제적 관계

(문) 남북 경협사업의 여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61.3
2. 그렇지 않다	37.3
3. 보통이다	1.3
4. 그렇다	0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문) 남북 교역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25.3
2. 그렇지 않다	36.0
3. 보통이다	18.7
4. 그렇다	17.3
5. 매우 그렇다	2.7
계	100.0

(문) 북한 경제가 점차 개방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21.3
2. 그렇지 않다	49.3
3. 보통이다	25.3
4. 그렇다	4.0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문)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22.7
2. 그렇지 않다	56.0
3. 보통이다	18.7
4. 그렇다	2.7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문)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53.3
2. 그렇지 않다	44.0
3. 보통이다	2.7
4. 그렇다	0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문)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24.0
2. 그렇지 않다	53.3
3. 보통이다	20.0
4. 그렇다	2.7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문)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68.0
2. 그렇지 않다	32.0
3. 보통이다	0
4. 그렇다	0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문)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18.7
2. 그렇지 않다	54.7
3. 보통이다	16.0
4. 그렇다	10.7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많아졌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53.3
2. 그렇지 않다	36.0
3. 보통이다	10.7
4. 그렇다	0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문)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62.7
2. 그렇지 않다	36.0
3. 보통이다	1.3
4. 그렇다	0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

(문)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
1. 매우 그렇지 않다	24.0
2. 그렇지 않다	53.3
3. 보통이다	18.7
4. 그렇다	4.0
5. 매우 그렇다	0
계	100.0